

##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유 계 속

(경희대학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이유와 함께 과도한 주거 및 결혼비용은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욕구 수준과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경향을 살펴보고, 소비욕구 수준이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 변인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여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8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욕구 수준이 높은 편이며, 자신의 결혼비용을 평균 8천3백68만원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본인부담 결혼비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을 기대했으며(남 1억814만원, 여 5천9백74만원), 과시적 소비욕구는 기대결혼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기대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남 30.63세, 여 28.90세)로 만혼화 경향을 나타냈으며, 기대하는 본인부담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게 결혼준비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혼례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용어: 기대결혼비용, 기대결혼연령, 소비욕구, 청년층, 대학생

이 논문은 2013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투고일: 2014.1.23

■ 수정일: 2014.3.17

■ 게재확정일: 2014.4.11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혼화 현상과 미혼율의 증가 등 혼인력의 약화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상립, 2013). 즉 저출산 현상은 결혼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결혼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은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과 결혼과정에서의 비용부담 등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을 초래하는 주요인 중 하나인 결혼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비용 등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상호·이상현, 2010). 현재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그리고 높은 집값과 결혼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미혼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계청(2013)의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초혼연령은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전년대비 남자 0.2세, 여자 0.3세가 상승하였으며, 약 20년 전인 1990년의 초혼연령 남자 27.9세, 여자 24.8세와 비교해볼 때, 무려 4~5세가 확연히 증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만혼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건복지부(2013)가 발표한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미혼남성은 비율은 2009년 69.8%에서 2012년 67.5%로 약 2%가 감소하였고, 여성은 63.2%에서 56.6%로 무려 6.6%가 감소하면서 최근 3년간 미혼남녀 모두, 특히 미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미혼남성의 40.4%와 미혼여성의 19.4%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고용 불안정(87.8%)'을, 그리고 여성은 '결혼비용 부족(86.3%)'을 결혼기피 사유의 1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결혼기피 현상과 더불어 미혼남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연령에 비하여 실제 결혼을 계획하는 기대결혼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미혼남성은 이상적 결혼연령을 31.5세로 보지만, 실제 결혼을 계획하는 기대결혼연령은 33.05세로 응답하였으며, 미혼여성도 이상적 결혼연령은 29.6세, 기대결혼연령은 30.64세로 응답하였다. 한편 미혼남성의 8.2%, 미혼여성의 5.6%는 결혼을 계획했다가 연기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결혼을 연기한 사유로 남성은 '수입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집 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18.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이유와 함께 과도한 주거 및 결혼비용은 우리 사회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평균 결혼비용은 1억3천498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무려 2억8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2007년, 2009~2011년 사이에 결혼비용이 각각 3천~4천여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및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한 전세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마련비용의 변동을 가늠하는 대용지표인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1990~1997년 기간 중 연평균 2.2%에서 1998-2009년 기간 중에는 3.3%로 상승세가 높아짐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주택마련비용 부담이 미혼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상호·이상현, 2010).

이밖에도 최근 3년간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상승폭이 큰 항목은 결혼식 비용으로, 2003년 1천만원대에 진입한 결혼식 비용은 2011년 1천722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현재의 결혼식은 전통혼례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하고, 상업적·물질적 측면에서 외형이 확대되어 결혼식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과소비와 허례허식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만혼 및 비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여성가족부, 2012). 특히 호텔 결혼식 등이 증가하면서 결혼비용과 결혼연령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젊은층 미혼남녀들은 결혼비용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혼주인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빚까지 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녀의 결혼 시 부모의 현금 지원을 통한 세대 간 자산이전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노후시기의 경제적 자립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이소영, 2011). 또한 결혼비용을 부모에 기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들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의 도움을 당연시하거나 부모로부터 더 많이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만혼 및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공감형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미혼남녀 및 예비부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욕구 수준과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경향을 살펴보고, 소비욕구 수준

이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 변인이 대학생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장래의 결혼비용이나 결혼연령에 관한 미혼 대학생들의 응답이 향후 행해질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커플관계는 결혼 등 향후 생애기획을 위한 필수경험으로 강조되며, 커플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가의 소비문화가 관계의 기준이 되고, 저소득층 대학생은 이러한 소비문화에서 소외되는 양극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김효진, 2010).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미혼 청년층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행해질 이들의 결혼문화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한정화, 1999). 특히 사회, 문화,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20대는 우리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한다. 따라서 변화의 원동력인 이들의 소비욕구와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변화하는 세상을 예측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김나경, 2011).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 및 기대결혼연령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는 기대결혼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은 기대결혼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문헌고찰

### 1. 이론적 배경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모형을 통해 결혼에 관한 남녀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Becker(1973)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행동하며,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역시 경제적 계산의 결과로 보았다. 그의 결혼이론(A theory of marriage)에 따르면, 결혼시장 참가자는 결혼을 통해 얻는 효용수준이 미혼으로 남았을 때의 효용수준보다 높을 경우 결혼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미혼을 선택한다고 한다. 여기서 결혼을 통해 얻는 효용이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신을 부양할 배우자가 있다는 정신적 안정, 공공재의 이익 등을 의미하며, 남녀가 미혼상태로 남지 않고 결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 인적 자본, 임금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오창섭 · 최성혁, 2012; 이상호 · 이상현, 2010).

최근 우리 사회의 만혼화 현상은 결혼을 고려하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익보다 혼례비용이나 주거 마련비용 등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더 크게 평가함으로써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이소영,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추론을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미혼 청년층 개인의 소비욕구와 향후 기대결혼비용 및 기대결혼연령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시·도 패널 및 노동패널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거비용의 증대는 결혼건수와 결혼율의 감소를 가져오며, 주택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주거마련비용 문제에 직면할 경우 여성에 대한 청혼이 늦어져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창섭 · 최성혁, 2012; 이상호 · 이상현, 2010).

### 2. 소비욕구

인간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질적 · 경제적 효용가치뿐만 아니라 심리 · 사회 · 문화적 상징과 의미의 측면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

주관적으로 원하거나 바라는 포괄적 소망을 소비욕구(consumption wants)라 하며, 이는 개인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욕구에서의 소비는 경제적 효용성의 추구에 한정된 소비를 넘어서는 것이며, 욕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구(need)의 개념을 초월하여 개인의 희망이나 소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김민정·김기옥, 2008).

이러한 소비욕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욕구와 개인-사회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욕구로 구성되며, 개인적 욕구는 이성적 욕구와 감성적(정서적) 욕구로, 그리고 사회적 욕구는 자신과 타인 중 누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중심이 되면 표현의 욕구, 타인이 중심이 되면 동조의 욕구로 구분된다. 이성적 욕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인지적 욕구와 어려운 과업을 달성하거나 자신이 지닌 재능과 기술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취(자기개발)의 욕구로 구분되며, 감성적(정서적) 욕구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자기위안 등의 정신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정의 욕구,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의 미적 아름다움을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심미의 욕구, 성적 매력의 충족이나 짜릿함을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욕구로 구분된다. 그리고 동조의 욕구는 집단의 구성원들이나 타인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그들과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관계의 욕구와 유행을 따르거나 대중의 선호를 따르고자 하는 편승의 욕구로 구분되며, 표현의 욕구는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거나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과시의 욕구와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생을 원하는 차별화의 욕구로 구분된다(김민정·김기옥, 2008).

현재 우리 사회의 20대 청년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과시적 소비성향 가지고 쇼핑을 즐기며, 명품을 선호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신속히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에고(Ego) 소비 성향을 가지며, 브랜드 의류나 유행하는 아이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소비욕구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20대는 성공을 물질적 부의 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김나경, 2011).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과도한 결혼비용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 당사자와 그 집안이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표출하고자 하는 소비욕구는 경쟁적으로 결혼에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나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 전통적으로 집단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는 남의 시선이나 타인의 이목에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실속이나 만족보다 외양적 성대함과 과시적 욕구에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비생활 및 소비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타인의 과시적 소비행태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결혼식 등 정작 본인의 관혼상제례를 치르게 되면, 자신이 비판한 타인의 행태나 기존 관습과 규범을 답습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과시로써 모순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결혼 문화 및 혼례식은 사회의 고질적 주요 병폐로 비판받아왔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결혼식은 양가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외부에 보여주는 이벤트이며, 지나친 예물과 예단 등은 우리 사회의 허례허식적 소비욕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정은·이기춘, 2006).

### 3. 기대결혼비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이 25~35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32.5%가 '3천만원 미만'을 이상적인 결혼비용으로 응답하였으며, 28.1%는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14%는 '1억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11.4%는 '3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는 51.9%가 '3천만원 미만'을 이상적 결혼비용으로 응답하였으며, 31.1%는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으로 응답함으로써 미혼남성의 기대결혼비용이 미혼여성의 그것에 비하여 확연히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미혼의 직장인 남녀 1,558명의 기대결혼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대결혼비용은 2억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97%의 응답자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금전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결혼비용 중 주택마련비용은 평균 1억4천582만원을 기대함으로써 전체 결혼비용의 4분의 3이 신혼집 마련을 위한 지출에 소요되는 것으로 기대했으며, 35%의 응답자는 '대출', 33%는 '적금 등 모아둔 돈 사용', 22%는 '부모님 지원'으로 주거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신혼집 마련비용을 제외한 기타 결혼비용은 평균 5천48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현재 결혼 준비 중인 응답자의 88%가 경기불황으로 결혼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비용 축소 항목 1순위'는 예단·예물비(69%)였으며, '혼수 준비비(48%)'와 '예식비(29%)'가 뒤를 이었다(중앙일보, 2013.2.26.).

최근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가 전국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23쌍을 조사한 '2011년도 한국의 결혼문화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하는 부부가 실제로 지출한 총 결혼비용은 평균 2억808만원이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신혼집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1억4천219만원이었고, 이는 전체 결혼비용의 68.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식(1천722만원, 8.3%), 혼수(1천618만원, 7.8%), 예단(1천249만원, 6.0%), 예물(1천171만원, 5.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결혼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 지출비용은 2009년 1천53만원에서 2011년 1천722만원으로 무려 63.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혼식장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즉 일반예식장에서의 결혼식 비중은 2009년까지 70%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61.9%로 낮아지고, 호텔 결혼식이 22.9%로 10% 증가하였다. 호텔 결혼식의 평균 지출비용은 2천759만원으로 일반예식장의 평균 지출비용인 1천453만원의 2배가량 된다. 따라서 최근의 고비용 결혼식 관행은 혼인당사자와 가족의 경제력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소비욕구 충족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70여년간 신랑, 신부 양측 모두 지속적인 결혼비용 증가현상을 겪어왔다. 전통적인 부거제에서 신거제의 보급으로 인하여 신랑 측의 신혼주거 마련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시 신부 측의 예단비용 증가를 초래하였다. 즉 '신혼주거의 제공은 신랑 측 의무'라는 부거제 의식의 전통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신부 측의 예단이 금전화 되면서 양측의 상호교환적 지출이 보다 분명해지고, 신랑 측에 보낸 예단비의 일부가 신부 측으로 되돌아오는 관행까지 생겨나고 있다(김주희, 2005).

이와 관련하여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랑 측의 평균 지출액은 1억5천707만원으로 전체 결혼비용의 75.5%를 차지한 반면, 신부 측의 평균 지출액은 5천101만원으로 24.5%를 차지하였다. 신랑 측 부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혼집 마련으로 평균 1억2천982만원이었으며, 이는 신랑 측 총 지출액의 82.7%를 차지함으로써 신혼집 마련의 부담을 상당 부분 신랑 측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부 측 부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수비용으로서 1천461만원이었으며, 이는 신부 측 총 지출액의 28.6%를 차지하였다(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1). 즉 현재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는 '남자=집, 여자=혼수'의 등식이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자녀의 혼인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혼례문화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의 팽배 이외에도 부모가 성인자녀의 결혼에 깊이 개입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부모의 욕구와 소망이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표현되는 한편, 자녀는 부모에 기대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존주의적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결혼 시 양가의 교환능력은 결혼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결혼비용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김주희, 2005). 양가의 경제력에 따른 결혼비용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물과 예단의 경우, 자산 규모 10억 미만인 가정과 10억 이상-30억 미만인 가정의 지출비용 차이가 200~400만원에 불과한 반면, 30억 이상인 가정과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 관련비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결혼식의 경우, 30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가정에서는 여타 가정에 비해 3배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식은 대외적으로 양가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고비용의 결혼식을 치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가의 경제력에 따른 결혼식장의 선호를 살펴보면, 자산규모 30억 미만인 가정은 일반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30억 이상인 경우 일반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 비율이 44%,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른 비율이 42%로 여타 집단에 비해 호텔 결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서 결혼비용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젊은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주택을 장만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거나 높은 결혼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원가족의 경제력에 따른 결혼비용의 양극화는 부모의 경제자원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1).

#### 4. 기대결혼연령

우리나라의 20~44세 미혼남녀가 기대하는 결혼연령을 조사한 연구(이삼식 외, 2009)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은 평균 32.1세, 미혼여성의 경우 평균 30.6세로 2005년 조사결과(미혼남성 31.8세, 미혼여성 29.7세)와 비교해볼 때, 만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대 인구 중 미혼 인구의 비율은 2000~2010년 사이 10년간 7.2%에서 11.6%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청년층 1인가구의 비중은 우리 사회의 만혼화 및 비혼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김영철, 2011).

이러한 만혼화 및 비혼화 추세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성차별적 결혼 문화에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을 3세 이상 상회하는 미혼남녀 416명의 결혼관을 조사한 조선일보(2012.9.1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값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남성이 82.1%, 여성도 8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배우자 선택 시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며, 여성들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우월적 지위의 남성을 선호한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의 조사결과, '신혼집을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25~35세 미혼남성은 20.2%에 불과한 반면, 25~35세 미혼여성의 47.2%와 결혼 3년 미만 기혼여성의 45.0%가 남성의 신혼집 마련에 동의함으로써 신혼집 마련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의 미혼남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처지로 인하여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전체 미혼남성의 35%에 이르는 한편,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을 꼽고 있다(이삼식 외, 2009).

과거에 비하여 젊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현재의 청년실업을 고려할 때, 남성의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성차별적 결혼문화는 미혼남녀간의 미스매치를 증대시킴으로써 현재의 만혼화와 비혼화 추세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급격한 미혼율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기혼여성들의 출산수준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김영철, 2011).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5~6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13개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비와 학년을 안배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511명의 대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한 질문지 중 492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조사시점 현재 기혼자이거나 향후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자료와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84명 대학생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청년층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청년층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384)

인구사회학적 특징		통계값	n(%)	M(SD)	범위
성별	남		190(49.5)		
	여		194(50.5)		
학년	1학년		94(24.5)		
	2학년		95(24.7)		
	3학년		106(27.6)		
	4학년		89(23.2)		
전공	인문사회계열		193(50.3)		
	자연계열		133(34.6)		
	예체능계열		58(15.1)		
만 연령 (세)				21.23(2.04)	18 - 29
응답자를 포함한 원가족의 총 자녀수				2.12(.58)	1 - 5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10,000원)				441.41(200.49)	0 - 2,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민정(2007)이 개발한 소비욕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8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소비욕구척도를 직각회전을 통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 이하이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개 문항(‘나의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해주는 소비를 하고 싶다’, ‘짜릿함을 얻을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을 제외하고, 총 26개 문항으로부터 6개의 소비욕구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6개 요인은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 변량의 60.63%를 설명한다(표 2 참조). 이들 요인을 선행연구(김민정·김기욱, 2008)에 근거하여 명명하면, 동조·인지정서·자기개발·심미감·과시·차별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하위 소비욕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동조의 소비욕구는 사회적 관행과 규범, 또는 유행이나 사회변화를 따르고 편승하기 위한 소비욕구를 의미한다. 인지정서적 소비욕구는 지적 호기심 충족과 정보 획득, 심리적 만족감, 스트레스 해소, 관계의 유지 등을 위한 소비욕구를 뜻하고, 자기개발 소비욕구는 자신의 능력 향상이나 성취를 위한 소비욕구를 의미한다. 또한 심미적 소비욕구는 미적 매력이나 외관의 아름다움 등을 충족하려는 소비욕구이며, 과시적 소비욕구는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소비욕구를 의미하며, 차별화의 소비욕구는 자신의 개성, 독특성, 희소가치 등을 추구하는 소비욕구를 뜻한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동조의 욕구(5문항,  $\alpha=.82$ ), 인지정서적 욕구(6문항,  $\alpha=.78$ ), 자기개발 욕구(4문항,  $\alpha=.76$ ), 심미적 욕구(4문항,  $\alpha=.73$ ), 과시적 욕구(4문항,  $\alpha=.79$ ), 차별화 욕구(3문항,  $\alpha=.65$ )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과 총점을 해당 소비욕구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연구대상인 미혼 청년층 대학생의 결혼의향 여부와 함께 향후 결혼에서 상대방 측의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측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 액수와 자신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연령,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수준 및 총 자녀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질문하였다.

표 2. 소비욕구 주성분분석 결과

(N=384)

소비욕구 측정문항	성분					
	동조의 욕구	인지 정서적 욕구	자기 개발 욕구	심미적 욕구	과시적 욕구	차별화 욕구
대중적인 유행을 따르는 소비를 하고 싶다.	.79	-.02	-.05	.15	.11	.06
집단구성원과 동질감을 느끼는 소비를 하고 싶다.	.77	.14	-.05	-.05	.21	-.04
사회변화의 흐름에 동조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	.77	.06	-.02	.15	.13	.12
타인들의 선호에 편승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	.75	-.03	-.12	.08	.26	-.14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소비를 하고 싶다.	.49	.47	.19	-.03	.01	.16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소비를 하고 싶다.	.03	.74	.07	.25	.06	.07
사람들과 친분을 돈독하게 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	.30	.63	.23	-.03	.08	.15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소비를 하고 싶다.	.20	.61	.22	.28	-.23	.11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소비를 하고 싶다.	-.25	.56	.37	-.02	.10	.12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	-.02	.54	.38	-.06	.30	.03
나의 일을 향상시키는 소비를 하고 싶다.	-.05	.52	.44	.09	.16	.07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	-.09	.20	.75	-.05	.01	.12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비를 하고 싶다.	-.10	.21	.72	.19	.07	.11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싶다.	-.10	.34	.69	.17	.01	.07
자기보상감이 충족되는 소비를 하고 싶다.	.14	.11	.57	.29	.00	.01
나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소비를 하고 싶다.	.10	.20	.08	.79	.11	.08
미적 매력이 충족되는 소비를 하고 싶다.	-.08	.26	.02	.77	.17	.05
디자인과 같이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	.12	-.08	.26	.70	.08	.18
성적인 매력이 충족되는 소비를 하고 싶다.	.22	-.10	.23	.42	.19	.03
나의 권위나 명예를 상징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	.19	.10	.05	.19	.81	.13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소비를 하고 싶다.	.20	.17	.23	.03	.66	.02
나의 부를 드러내는 소비를 하고 싶다.	.40	-.15	-.07	.20	.65	.11
나의 우월감이 돋보이는 소비를 하고 싶다.	.19	.13	-.05	.43	.59	.12
개성이 표현되는 소비를 하고 싶다.	.09	.08	.21	.19	.02	.81
나만의 독특성을 증가시키는 소비를 하고 싶다.	.03	.09	.26	.19	.07	.77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비를 하고 싶다.	-.06	.26	-.18	-.07	.23	.61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 및 기대결혼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범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 원가족의 자녀수 및 월평균 소득액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여섯 가지 소비욕구 수준이 장래 기대하는 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소비욕구 수준을 통제하고, 장래 기대하는 결혼비용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 및 기대결혼연령의 전반적 경향

청년층 대학생들의 소비욕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며, 특히 자기개발 욕구( $M=5.66, SD=.85$ )와 인지정서적 욕구( $M=5.60, SD=.82$ )가 높은 수준이고, 심미적 욕구( $M=4.98, SD=1.01$ )와 차별화 욕구( $M=4.88, SD=1.07$ )가 뒤를 이었으며, 과시적 욕구( $M=4.28, SD=1.26$ )와 동조의 욕구( $M=4.26, SD=1.07$ )는 보통에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대학생이 향후 결혼에서 상대방측의 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측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 액수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6억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8천3백68만원( $SD=70.62$ )(남 1억814만원, 여 5천9백74만원)으로 나타났고, 기대하는 결혼연령은 만 24-37세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29.76세( $SD=2.22$ )(남 30.63세, 여 28.90세)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 및 기대결혼연령의 전반적 경향 (N=384)

변인		M(SD)	범위
소비욕구	동조의 욕구	4.26(1.07)	가능 범위: 1 - 7
	인지정서적 욕구	5.60(.82)	
	자기개발 욕구	5.66(.85)	
	심미적 욕구	4.98(1.01)	
	과시적 욕구	4.28(1.26)	
	차별화 욕구	4.88(1.07)	
기대결혼비용 (1,000,000원)	전체	83.68(70.62)	범위: 1 - 600 t=7.09***
	남 (n=190)	108.14(85.28)	
	여 (n=194)	59.74(40.12)	
기대결혼연령 (세)	전체	29.76(2.22)	범위: 24 - 37 t=8.26***
	남 (n=190)	30.63(2.45)	
	여 (n=194)	28.90(1.56)	

\*\*\*p< .001

## 2.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odel 1에서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 및 원가족의 자녀수와 월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기대결혼비용 변량의 12.0%를 설명하였으며( $F=12.95, p<.001$ ), 다음으로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여섯 가지 소비욕구변인을 투입한 결과, 기대결혼비용 변량의 15.2%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2.36, p<.05$ ).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 $\beta=.35, p<.001$ ), 그리고 다양한 소비욕구 중 과시적 소비욕구의 수준이 높을수록( $\beta=.13, p<.01$ ) 향후 본인 측에서 부담하는 기대결혼비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소비욕구는 기대결혼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 참조). 한편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부록 표 1, 2 참조), 남학생의 소비욕구는 기대결혼비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과시적 소비욕구가 높고( $\beta=.22, p<.05$ ), 동조의 욕구가 낮을수록( $\beta=-.18, p<.05$ ) 기대결혼비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역시 유의미한 설명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

(N=384)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대결혼비용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상수		162.75(42.52)		184.92(50.15)	
성별 <sup>1)</sup>		-49.02(7.02)	-.35***	-49.65(7.21)	-.35***
연령		-.34(1.71)	-.01	.72(1.73)	.02
원가족의 자녀수		-2.53(5.88)	-.02	-1.49(5.87)	-.01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02(.02)	.05	.02(.02)	.05
동조의 욕구				-.59(.75)	-.05
인지정서적 욕구				-1.12(.95)	-.08
자기개발 욕구				-2.20(1.36)	-.11
심미적 욕구				.65(1.07)	.04
과시적 욕구				1.90(.85)	.13*
차별화 욕구				.51(1.19)	.02
R <sup>2</sup>		.12		.15	
F for change in R <sup>2</sup>		12.95***		2.36*	

주: 1) 성별: 0=남 1=여

\*p< .05 \*\*\*p< .001 VIF=1.01-1.91

### 3.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odel 1에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여섯 가지 소비욕구변인을 투입한 결과, 향후 기대결혼연령 변량의 19.2%를 설명하였으며( $F=8.85, p<.001$ ),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하고, 기대결혼비용을 투입한 결과, 기대결혼연령 변량의 20.0%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F=3.90, p<.05$ ). 각 독립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beta=-.30, p<.001$ ), 연령이 많을수록( $\beta=.18, p<.001$ ) 향후 기대하는 결혼연령은 늦춰지는 반면, 대학생의 소비욕구 수준은 향후 기대결혼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본인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



혼비용이 많을수록( $\beta=.10, p<.05$ ) 대학생 자신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부록 표 3, 4 참조), 남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대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beta=.24, p<.01$ ), 이들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도 차별화 소비욕구가 높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으나( $\beta=.16, p<.05$ )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표 5.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N=384)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대결혼연령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상수	29.17(1.54)		28.59(1.56)		
성별 1)	-1.49(.22)	-.34***	-1.34(.23)	-.30***	
연령	.19(.05)	.18***	.19(.05)	.18***	
원가족의 자녀수	-.06(.18)	-.02	-.06(.18)	-.01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01	.00(.00)	-.01	
동조의 욕구	.02(.02)	.04	.02(.02)	.04	
인지정서적 욕구	-.04(.03)	-.08	-.03(.03)	-.07	
자기개발 욕구	-.02(.04)	-.03	-.01(.04)	-.01	
심미적 욕구	-.05(.03)	-.08	-.05(.03)	-.08	
과시적 욕구	.03(.03)	.06	.02(.03)	.04	
차별화 욕구	.04(.04)	.06	.04(.04)	.06	
기대결혼비용			.00(.00)	.10*	
R <sup>2</sup>		.19		.20	
F for change in R <sup>2</sup>		8.85***		3.90*	

주: 1) 성별: 0=남 1=여

\* $p<.05$  \*\*\* $p<.001$  VIF=1.02-1.93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384명의 미혼남녀 청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욕구 수준과 향후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경향을 살펴보고, 소비욕구 수준이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 변인이 장래의 기대결혼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예비결혼세대인 현재의 청년층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욕구 수준이 높은 편이며, 향후 자신의 결혼비용을 평균 8천3백68만원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향후 본인측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 지출을 기대했으며(남 1억814만원, 여 5천9백74만원), 여러 가지 소비욕구 중 유일하게 과시적 소비욕구가 대학생의 기대결혼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의 조사결과(신랑 측 평균 지출액 1억5천707만원, 신부 측 평균 지출액 5천101만원)와 비교하면,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의 기대결혼비용은 기혼자의 실제 결혼비용 지출액에 비하여 남학생은 약 5천만원 적게 기대하는 반면, 여학생은 약 1천만원 정도 많게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 자신의 결혼비용에 대하여 남학생은 현실보다 과소기대를 하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결혼비용 부담의 남녀격차가 신세대에서 줄어들고,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으로 변모해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결혼비용의 지출을 기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서도 여전히 '신혼주거의 제공은 신랑 측 의무'라는 부거제 의식의 전통(김주희, 2005)과 '남자=집, 여자=혼수'의 결혼문화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다양한 소비욕구 중 과시적 소비욕구만이 향후 기대결혼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현재의 20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고비용 결혼관행에서 호텔 결혼식 등을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외에 과시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선행연구결과들(김나경, 2011;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1)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처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과시가 중시되는 이유는 여타 국가에 비하여 우리 사회의 과시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를 매개로 한 인격의 과시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즉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의 우열을 곧 인격적 우열로 인정하는 경향(이홍규, 2006)이 강하기 때문에 대출 등의 무리를 해서라도 고비용의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주택을 마련하려는 분위기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결혼세대인 신세대 대학생에서조차 이러한 과시의 사회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허례허식적이고 비효율적 결혼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둘째, 대학생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남 30.63세, 여 28.90세)로 20-44세 미혼남녀의 기대결혼연령을 조사한 이삼식 외(2009)의 연구결과(남성 32.1세, 여성 30.6세)와 비교해볼 때, 1.5~1.7세 정도 빠른 연령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이 평균 21.23세(범위 18~29세)로 20대 미혼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30,4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 결혼할 것을 기대했다고 추론되며,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기대결혼연령이 1998년의 초혼연령 남 28.8세, 여 26.0세(통계청, 1998)이나 2005년의 초혼연령 남 30.4세, 여 27.2세(통계청, 2005)보다 높은 연령으로서 현재 미혼 청년층 대학생에서도 만혼 의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기대결혼연령은 향후 결혼에서 본인 측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높은 결혼비용문제, 성차별적 결혼비용 부담구조 및 과시적 혼례문화의 병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만혼화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의 과시적 소비욕구는 향후 기대결혼연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대결혼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대결혼연령을 간접적으로 지연시키며, 이 과정에서 기대결혼비용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커니즘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비용을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소요되는 순수 결혼식비용과 결혼 후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신혼집 마련 및 혼수비용으로 구분해볼 때, 본 연구에서 과시적 소비욕구가 대학생의 기대결혼비용을 상승시키지만 기대결혼연령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순수 결혼식비용과 연관되며, 기대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을

지연시키는 결과는 결혼 후 필요한 혼수 및 신혼집 마련비용과 보다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나 기대결혼비용의 매개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후속연구가 보다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혼인지원 정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와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교육하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의 소비자인 대학생들에게 결혼은 자금의 결정적 지출 시점으로서 차용의 정당화를 불러일으키고, 결혼의 과정은 당사자에게 큰 자본 위기로 다가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결혼 후 상당기간 동안 결혼채무에 시달리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존문화, 결혼비용의 성별 분담구조, 일회성 과소비, 과시적 지출과 일상의 채무 등 결혼비용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혼례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결혼 지출내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계획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 재무 포트폴리오 실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김정은·이기춘, 2006).

한편 우리 사회에서 신혼부부가 내 집 장만을 하기까지는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김란영, 2013).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분양 등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결혼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정책의 대상이 미혼자나 결혼 예정자보다 사실상 가족을 형성한 기혼부부 중심이며,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주택지원 성격이 강해서 미혼자의 결혼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미혼 청년층까지 보다 확대하여 이들의 결혼지원 정책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상림, 2013). 특히 자녀가 만 18~20세에 이르면 독립된 성인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양육의무가 끝나는 서구 가족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생애주기 상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대체로 경제적 자원의 70% 정도를 사전증여하고 30%는 상속하는 경향이다. 생애주기 후반기에 성인자녀의 결혼비용이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루어지는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은 고령시대 중노년기 부모들의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들의 노후대비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정책은 현재까지 미미한

실정이다(배희선, 2008). 성재민(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은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되며, 2003년 소득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1분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9%인 반면, 5분위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1.8%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세대관계에서 사적이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미혼자와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단위의 결혼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년층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하며, 추후 사례수와 사례의 특성 등 대표성 있는 미혼 청년층 표집을 통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 대학생의 기대결혼비용과 기대결혼연령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들이 실제 부담할 결혼비용이나 결혼연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과 아울러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현재의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변화추이와 함께 장래 이들의 실제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을 추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을 위하여 결혼준비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보다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유계숙은 미국 Purdue University에서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산, 청년고용, 일-가족 양립이며, 현재 청년층의 결혼, 출산 관련 주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ongrazi@khu.ac.kr)

## 참고문헌

---

- 김나경(2011). LGERI 리포트: 2011년 대한민국 20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LG Business Insight, 2011.8.17. 서울: LG경제연구원.
- 김란영(2013). 결혼연령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변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김민정(2007). 소비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김민정, 김기욱(2008). 소비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19(1), pp.1-23.
- 김승권, 최영준(2013).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민(2013.2.26). 男女직장인 “집값 빼고 예상하는 결혼값이...”. 중앙일보, B03면.
- 김영철(2011).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KDI Focus, 11.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은, 이기춘(2006). 결혼의 소비지출과 소비문화 고찰을 통한 결혼준비소비자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pp.107-128.
- 김주희(2005). 해방 후 혼수문화 변천에 대한 사례연구: 부거제 의식과 가족주의의 지속. 가족과 문화, 17(2), pp.127-154.
- 김효진(2010). 신자유주의적 상황 아래 대학생의 연애와 생애기획: 저소득층 ‘명문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배희선(200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pp.47-79.
- 보건복지부(2013).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패널연구, pp.75-83.
- 여성가족부(2012). 겹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오창섭, 최성혁(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복지행정논총, 22(1), pp.91-125.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립(2013). 혼인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 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445.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소영(2011). 세대간 자산이전측면에서 연령대에 따른 결혼시 주거자금 마련 변화추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pp.205-216.
- 이흥균(2006). 한국인의 사회적 과시와 인정의 사회적 형식. *담론* 201, 9(2), pp.207-244.
- 최중석, 박진영(2012.9.12.). [부모의 눈물로 올리는 웨딩마치 | TV조선 공동기획·제5부] (3) 노총각·노처녀 82%가 “집값 등 부담 커 결혼 못해”. *조선일보*, A1면.
- 통계청(2013). 2012년 혼인·이혼 통계. <http://kostat.go.kr/portal/english/news/1/1/index.board?bmode=read&aSeq=287104>. 2013.11.7 인출.
- 통계청(2005). 2005년 혼인·이혼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1998). 1998년 혼인·이혼 통계. 대전: 통계청.
-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1). 2011년도 한국의 결혼문화조사. <http://www.couple.net/kr/about-us/companyoverview-marriageCultureReport-article-0011163.html>. 2013.11.7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결혼문화 및 예식에 대한 인식조사. *가족정책포커스*, 13.
- 한정화(1999). 남녀대학생의 혼례비용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6, pp. 177-201.
-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pp.813-846.

## 부록

부표 1. 남자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

(N=190)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대결혼비용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상수	91.02(64.44)		99.04(77.95)	
연령	-.03(2.61)	-.00	1.87(2.68)	.05
원가족의 자녀수	-1.41(10.40)	-.01	-1.43(10.42)	-.01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05(.04)	.10	.07(.04)	.13
동조의 욕구			.13(1.29)	.01
인지정서적 욕구			-1.80(1.71)	-.11
자기개발 욕구			-3.34(2.48)	-.14
심미적 욕구			.73(1.79)	.04
과시적 욕구			1.59(1.43)	.10
차별화 욕구			2.45(2.22)	.09
R <sup>2</sup>	.01		.06	
F for change in R <sup>2</sup>	.62		1.53	

VIF=1.00-2.02

부표 2. 여자 대학생의 소비욕구가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

(N=194)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대결혼비용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상수	74.(41.85)		109.36(49.46)	
연령	-.26(1.95)	-.01	.02(1.99)	.00
원가족의 자녀수	-3.75(5.19)	-.05	-2.51(5.19)	-.04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1)	-.02	-.00(.01)	-.02
동조의 욕구			-1.49(.70)	-.18*
인지정서적 욕구			-.30(.83)	-.04
자기개발 욕구			-1.46(1.19)	-.12
심미적 욕구			.20(1.05)	.02
과시적 욕구			2.02(.81)	.22*
차별화 욕구			-.49(1.03)	-.04
R <sup>2</sup>	.00		.06	
F for change in R <sup>2</sup>	.20		1.74	

\*p< .05 VIF=1.00-1.93



부표 3. 남자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N=190)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대결혼연령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상수	27.98(2.21)		27.69(2.22)	
연령	.25(.08)	.24**	.24(.08)	.24**
원가족의 자녀수	-.06(.30)	-.01	-.05(.30)	-.01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02	3.732E-05(.00)	.00
동조의 욕구	.00(.04)	.01	.00(.04)	.01
인지정서적 욕구	-.03(.05)	-.07	-.03(.05)	-.05
자기개발 욕구	-.09(.07)	-.13	-.08(.07)	-.12
심미적 욕구	-.05(.05)	-.09	-.05(.05)	-.09
과시적 욕구	.05(.04)	.12	.05(.04)	.11
차별화 욕구	.02(.06)	.03	.02(.06)	.02
기대결혼비용			.00(.00)	.10
R <sup>2</sup>	.08		.09	
F for change in R <sup>2</sup>	1.77		1.98	

\*\*p< .01 VIF=1.02-2.04

부표 4. 여자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N=194)

독립변인	종속변인			
	기대결혼연령			
	Model 1		Model 2	
	B(S.E)	$\beta$	B(S.E)	$\beta$
상수	26.96(1.93)		26.62(1.96)	
연령	.08(.08)	.08	.08(.08)	.08
원가족의 자녀수	-.10(.20)	-.03	-.09(.20)	-.03
원가족의 월평균 소득	.00(.00)	-.03	.00(.00)	-.03
동조의 욕구	.02(.03)	.08	.03(.03)	.09
인지정서적 욕구	-.04(.03)	-.12	-.04(.03)	-.12
자기개발 욕구	.07(.05)	.14	.07(.05)	.15
심미적 욕구	-.05(.04)	-.11	-.05(.04)	-.11
과시적 욕구	-.02(.03)	-.07	-.03(.03)	-.09
차별화 욕구	.08(.04)	.16*	.08(.04)	.16*
기대결혼비용			.00(.00)	.08
R <sup>2</sup>	.04		.05	
F for change in R <sup>2</sup>	.90		1.18	

\*p< .05 VIF=1.03-1.93

## **Effects of Consumption Wants and Expected Wedding Expenses on Expected Marriage Ag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Yoo, Gye Sook**

(Kyung Hee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nsumption wants and expected wedding expenses on expected marriage age among 384 unmarried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showed high levels of consumption wants on the whole. The mean expected wedding expenses was 83,680,000 won, while the mean expected marriage age was 29.76 years.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xhibitionistic wan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tudents' expected wedding expenses in the futu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students' expected wedding expens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expected marriage ag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rational way of marriage preparation and consump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

**Keywords:** Expected Wedding Expenses, Expected Marriage Age, Consumption Wants, Youths, Undergraduate Students